



금계 (金鷄) 를 아시나요?

신 기 호
<가정주부>

금계라는 이름도 몰랐던 내가 경험이라야 몇해 되지도 않고 별 연구도 없이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외람되기도 하고 부끄러움이 앞선다. 그러나 부탁을 받은 이상 관상조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심자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길러보고 느낀점을 기록해 본다.

종조(금계)가 확보되기까지는 1년이 걸렸다. 1972년 봄 초생후 2쌍을 구입한 후 1973년 3월 19일 첫 산란을 시작하여 하루전저서 하나씩 두마리가 낳아서 5월 초에 폐란했다.

- 총 산란수46개
- 유정란수.....37개
- 부화 수수33수
- 육성 수수27수
- 분양 수수.....7수
- 종조확보수.....12쌍(어미 2쌍포함)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알도 적게 받았고 육추과정에서도 좋은 성적은 기대 할 수가 없었다.

다만 바라보는 재미로 길러본 것 뿐이다. 산란이 끝나고 깃을 같은 어미는 그 아름다운 빛깔이며 자태를 뒤편하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모이를 손에 들고있으면 와서 조아 먹으며 손등이나 어깨에 까지 올라 앉는다. 하루종일 바라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으니 인간의 정서순화를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을태가 없을 것이다. 평처럼 사납지 않고 순한 것이

금계의 특징이다.

다시 한해가 지나서 1974년 2월 15일 알을 낳기 시작했다. 물론 묵은 놈이 먼저 낳기 시작했으나 벌써 봄이 되었는데 하고 놀랄정도였다. 사양관리에도 전력을 기울였으나 양지 바른 옥상에서 캐광도 좋았고 아침 저녁으로 점등을 한 것도 조기 산란의 원인이 되었다.

이어서 일주일후부터는 새끼들도 초산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각처에서 종조를 분양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산란 도중이라고 거절하였으나 강제로 빼앗아 가다시피하여 안타깝게도 종란을 다 받지 못하고 분양해 주다보니 거의 다 나가고 4쌍 밖에 남지 않았다. 남아있는 4쌍은 수당 42개 이상의 산란 실적을 올렸다. 이해의 생산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총산란수..... 370개
- 유정란수..... 250개 (70%)
- 부화환수 226수 (90%)
- 육성된수..... 185수 (82%)

처음에는 취미살아 바라보는 재미로 기르던 것이 이제는 모이주기, 물갈아주기, 청소하기 등 벅찬 일과가 계속된다. 직장에 나가는 아빠와 학교 다니는 네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해가며 부화장예를 쫓아다니고 사료상회, 가축병원 등 벅찬 일과다. 그러나 바쁠수록 재미가 나고 옥상의 제사를 하루 20여회나 올라다녀도 피곤함을 몰랐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고 아빠가

직장에서 하루종일 시달릴 것을 생각하면 집 안에 남아있는 나는 저절로 부지런해진다. 그럭저럭 소문이 나서 이웃이나 친지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어떻게 알았는지 상인들도 수없이 들랑거려 거의 다 처분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부업인가 하는 느낌이 이제서야 들게 되었지만 한편 그들먹하던 병아리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나니까 서운한 감도 없지 않았다. 만 딸 시집보낸 부모의 허전한 마음에다 비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휴일이면 그이도 기구를 만들고 고치느라고 쉴사이가 없다. 남들은 등산이다 낚시다 하며 공해를 벗어나서 가족과 함께 즐기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한다지만 우리집에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처음에는 새똥하나만 밟아도 질겁을 하던 그이가 이제는 모이통에 들어간 계분을 손으로 주워내는데 서슴치 않는다. 가만히 앉아서 금계를 바라보느라 보면 빨강, 노랑, 파랑, 녹색, 갈색 등 깃털의 모양과 빛깔이 열가지나 됨을 알 수 있다. 이어찌 푸른하늘에 나부끼는 단풍잎이나 출렁이는 물결 위에 드리워진 낚싯대에도 비길 수가 있을까.

사양관리라고 하지만 양계 전문가들이 하는 일에 비한다면 너무나 무지하고 무계획적이었음을 스스로 비웃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앞서 개척한 선배 사육가들을 찾아다니며 견학도 하고 배우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월간양계”지를 틈나는대로 읽어 사료배합이나 위생관리에 전 신경을 기울였다. 73년 가을에 병이 돌아 각처에서 손해를 본 분들이 많아서 애를 태웠으나 다행히 그 고비를 잘 넘겼고 첫해에는 산란 성적이 좋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수준급 이상이었다고 생각된다. 육추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온도, 습도, 환기, 사료 등 조건이 맞지 않아 죽는 것도 있고 또 깃털을 쫓아 먹는 버릇을 가진 놈도 있다. 이런 것을 빨리 발견하여 별도 수용하든가 광도조절, 약물처리 등으로 방비책을 강구했다. 추백리에 걸린놈도 있었으나 만연되지는 않았었다.

부화장에서 건강하게 나온 병아리는 한달만

지나면 거의 안심이 된다. 증추나 성조가 되더라도 병이 없는 것은 아니고 늘 관찰을 잘 해야한다. 그러나 금계는 닭보다는 강하다고 한다.

산란기별 수정율(74년도)

초기 — 2.15~3.6……86%

중기 — 3.17~4.19……76%

말기 — 4.20~6.5……22%

초심자에게는 금계가 적당하고 종조는 순종을 구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공작을 비롯하여 금계, 은계, 산계, 백한, 원앙 등 20여종류의 관상조류가 있다. 대부분 값이 비싸고 종조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금계부터 길러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금계도 품종 선택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병아리때는 분간하기가 어렵고 자람에 따라 특색이 나타나는데 성조가 되어야 확실히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병아리를 구입하더라도 어미의 색깔을 확인하고 사는 것이 안전하다. 금은계와 은계의 잡종은 보기에 흉하고 관상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가슴이 검붉은 것, 눈밑에 검은 털이 있는 것, 목도리나 등이 은빛이 난다든가, 검거나 회색, 흰색 등이 보이면 은계의 인자가 섞인 것이다.

금계의 순종을 가려내는 방법

1. 은계에 비하여 몸이 작고 날씬함.
2. 가슴이 진홍색이고 관과 '허리부분의 빛깔이 셋노랑다.
3. 날개는 갈색과 남색이고 검은색이 있는 것은 은계혈통이 있는 것임.
4. 발가락과 다리는 노란것이 좋음.
5. 눈의 둘레가 검거나 청회색이면 순종이 아님.
6. 두개의 긴 꼬리(중앙)에는 쌀날만큼한 반점이 무수히 많이 있음. 평처럼 옆줄 무늬가 있는 것은 안됨.

금계의 종류에는 황금계 주황색 금계도 있으며 이것들은 금계의 돌연변이종으로서 특이한 관상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 료

사료는 대개 양계용 배합사료를 쓰고 있으나 자가사료로 농후한 급여를 하여도 경제적으로는 별 차가 없다.

사료 배합률은 대강 다음과 같다.

강냉이(멧돌에 타서)	35%
밀 (")	25%
겨	20%
어분	15%
번데기가루	5%

그밖에 녹두, 해바라기씨, 깨(깨묵), 수수, 완두콩, 피, 길보리, 무우씨, 고추씨 등을 약간씩 첨가하면 더욱 좋다. 그 위에 야채를 많이 주는 것이 좋다(배추, 양배추, 해바라기 잎) 이때 농약의 피해나 기생충을 예방하기 위하여 깨끗이 씻어주어야 한다. 산란 1개월 전부터는 어분을 배가하여 준다. 겨울철에는 무우잎이나 배추의 마른잎을 주어도 좋고 가장 잘 먹는 것은 아카시아잎으로 기생충에 대한 염려가 없어 좋다.

계 사

금계 한쌍이면 1m²의 면적에 60cm높이도 가능하나 좁으면 꼬리의 것이 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넓은 것이 좋고 운동장을 따로 마련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높이도 금계의 운동량이나 관리하는 사람의 활동면을 고려하여 6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겨울의 추위는 관계없으나 한더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계사에는 모래를 깔아주어야 하는데 너무 습하지 않은 것이 좋다. 화를 매어 주고 산란기에는 한쪽 구석에 알자리를 만들어 준다.

병충해 예방

1. 누icket 예방접종(연 2회)
2. 계두(연 1회)
3. 기생충 구제(연 1회)
4. 기타
 - 소독의 철저
 - 외인 출입금지

- 비둘기나 참새가 병을 옮기기도함.
-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안심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할 것.

부 화

부화온도(경면부화기).....38.9°C~39.4°C
(오차 0.2°C 이내)

부화일수 ...23일

요즈음 내조류의 알만을 전업으로 부화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 편리하며 사보를 이용하던 가장 안전함.

육 추

육추상자(10수단위).....2자×3자 넓이에 높이가 1.5자로하여 온실과 운동장으로 구분한다. 온실에는 전구를 달아서 온도를 맞추고 운동장에는 위에 망을 친다.

온도

부화후 1주간33°C~37°C

" 2주제.....29°C~32°C

" 3 "27°C

" 4 "26°C

" 5 "25°C

관상조류 가격(단위 쌍당 원)

금 계..... 400,000

은 계..... 200,000

황금계..... 180,000

백 한..... 60,000

산 계..... 130,000

진공작..... 400,000

백공작..... 300,000

청공작..... 250,000

화 계..... 250,000

원양(국산)..... 150,000

" (외산)..... 120,000

아직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으나 관상조류의 사육은 정서생활에 무엇보다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느 가정이나 한두쌍은 길러 볼만하다. 좀더 널리 보급되고 숫자가 많아지면 수출의 길을 터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도 있다하니 새마을소득증대 사업으로도 적극 권장하고 싶다. <한국 관상조류 연구원 협조>